군산형 히든챔피언 확대 선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총 6개사… 시와 소통 간담회

군산시는 25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2023년 유망 강소기업 신규 3개사, 강소기업 신규 3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신청접수를 통해 유망 강소기업 11개사, 강소기업 9개사 중 서류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심층평가를 가졌다.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스코트리(주) △(주)휴먼컴퓨지트 △(유)아리울수산 3개사이며, 강소기업은 △(주)제이아이테크 △(주)카라 △(주)코스텍 3개사다.

이번에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휴먼컴퓨지트는 국가산업단지, 스코트리(주)는 임피 농공단지, (유)아리울수산은 개별입지에 위치하며, 각각 풍력 블레이드, 수상부유구조체, 각종 수산물 가공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으로 위 기업들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기업이다.

올해부터 처음 선정을 시작한 강소기업으로는 (주)제이아이테크, (주)카라, (주)코스텍이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각각 반도체 전구체, 자동차 도장, 자동차 전장부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들이다. 위 세 기업은 지난 2019년 대비 2022년 세 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70.6%, 고용증가율은 36.9% 증가하는 등 지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크게 성장했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2019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관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유망 강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글로벌시장 뛰어들 발판 마련"

연,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 준공… 수출 날개 펴

익산시는 (주)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 준공을 수출시장 판로확대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연은 육가공 HMR(가정용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대식 부시장, 최종오 시의회 의장, 송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본부장, (주)연 박정천 대표 및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연은 지난 2021년 생산라인 신설 등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7,712.4㎡(2,333평)부지를 취득해 올해 신규공장 준공 후 5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 광주시에 본사를 둔 (주)연은 육가공 즉석조리식품, HMR 제품 전문 생산업체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를 완료하고 식품업체 간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준공식 기념으로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4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150포를 기탁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아끼지 않았다.

박정천 대표는 "이번 익산공장 준공으로 수출을 통한 글로벌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탁에 관해서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품을 준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에도 대규모 투자와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기탁을 해주신 박정천 대표와 기업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맛과 행복을 담은 행복 먹거리를 마련해 글로벌 식품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마을 골목길 183개소 포장정비 속도

익산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 안길포장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183개소 마을안길 개선을 위해 39억 원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노후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안길사업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골길 및 시내 골목길 포장정비를 말한다.

시는 현재 올해 사업 183건 중 70%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에 80%이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파손, 씽크홀 등 긴급민원 또한 신속하게 처리 중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황등면 상다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추진

익산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황등 상다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황등면 구자리 일원의 농어촌도로 구간 중 도로선형 불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미확보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약 450m)에 대한 도로개선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도로의 선형을 개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2014년 행정안전부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국비 50%를 포함한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이며, 7월 보상 협의 추진, 10월 공사 추진하여 2024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31일 GSCO서 2023 새만금JOB페스타 개최

군산시, 전 연령층 확대 즐기며 찾는 취업준비의 장 마련

군산시가 오는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3 새만금JOB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2023 새만금JOB페스타'는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작년 대비 참가자를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즐기며 찾을 수 있는 취업준비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내 9개 대학 및 13개의 유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으며, 참여기업과 구직자 사전매칭으로 현장 면접이 이뤄지는 JOB매칭데이 참여 기업체는 16개사로 확대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전략 특강(김아현 강사) △전북대 지역대학 육성사업단 사업설명(양일환 교수) △NCS특별강연(방영황 교수) △창업 멘토 특강((주)아이파테시피 이영근 대표) 등 취·창업 특강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취·창업 컨설팅과 사진촬영·인화서비스, 퍼스널 컬러 외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세탁소 힐링체험, 금융특강 등이 새롭게 준비됐다.

작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진행돼 기업과의 JOB현장매칭 등이 다소 아쉬웠으나,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위주로 도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현장 참가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터넷으로 사전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우수인재와 기업체의 가교 역할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양질의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은 신산업 대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지역 산업과 연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테크노파크, 신산업 대응 일력 양성 협약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은 지난 24일 오후 대학 본부 4층 제1소회의실에서 신산업 대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신산업 대응 인력양성,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연구 관련 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의 공동 활용,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이호근 교무처장, 장민석 산학협력단장과 이규택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영춘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유지연 전북과학기술진흥단 R&D기획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군산대 이장호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과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택 원장은 "국립군산대학교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꼭 선정되기를 바란다"며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전북 일자리 일번지로 '우뚝' … 청년 고용률 3.7% 상승

익산시가 전북을 대표하는 '일자리 일번지'로 우뚝 떠오르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 '청년시청' 운영으로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리며 2년 연속 우수 도내 일자리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전국 최초 농·식품 상생모델 '익산형 일자리'를 본격화하며 '일자리정책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25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된 '2022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정책추진실적, 도 일자리사업 참여도 등 종합적인 활동과 지역고용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시는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2021년 대비 청년 고용률 3.7%, 여성 고용률 1.3%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 결과다. 일자리를 청년의 지역이탈 문제와 연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익산청년시청'을 개청하고 '익산형 구인구직플랫폼' 운영으로 취업 성공률을 높였다.

전국 최고 수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경제적 도움으로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됐고 도내 최대규모로 추진 중인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등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민·관·학 일자리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일자리기관 협업과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은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